

UN무대 활용 5·18 세계화 '탄력'

5·18기념재단, 특별 협의 지위 획득으로 발언권 언어 국제 네트워크 형성·세계 인권 이슈 발빠른 연대 가능

5·18기념재단이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이슈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로부터 '특별 협의 지위'를 획득했다.

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유엔경제사회 이사회 가 지난달 4일 5·18기념재단을 특별 협의의 지위 NGO (비정부 기구)로 승인한 사실을 최근 통보받았다.

5·18기념재단은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관련 이슈에 대해 유엔에서 발언권을 획득했다고 자평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협의 지위를 승인 받은 NGO단체로는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홍사단' 등이 있다.

기념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준비를 거쳐 지난해 'NGO 위원회'에 협의 지위 신청을 했고, 올해 5월 말 뉴욕 정기세션에서 자격을 인정받아 9월 대 상 단위로 결정됐다.

이번 지위승인으로 5·18기념재단은 유엔이 주 최하는 회의에 참석, 제출된 안전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발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5·18의 이름으로

유엔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부대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에 참여해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로비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는 전 세계 NGO(비정부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NGO위원회' 추천을 받아 심의 후 특별한 역량을 갖춘 NGO에 협의 지위를 부여한다.

지위에는 '일반 협의지위' (General Consultative Status), '특별 협의지위' (Special Consultative Status), '명부상 협의지위' (Roster Consultative Status) 등으로 나뉜다.

지위유형에 따라 NGO단체의 권한과 의무가 달라진다. 기념재단이 획득한 '특별 협의의 지위'는 전문성을 갖춘 NGO에게 부여된다. 이번 지위획득은 그동안 5·18의 세계화를 이슈로 세계 각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활동을 펼쳐왔고, 광주인권상 시상을 통해 20년 넘게 세계 현장의 활동가들을 지지해왔으며, 광주민주포럼을 통해 국내외의 활

동기들과 민주·인권 이슈를 공론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온 결과의 산물이라고 기념재단측은 설명했다. 또 아시아인권연장 제정을 통해 아시아 인권 의 보편적 기준과 국제적 인권규범을 제시함과 동시에 최근 홍콩, 태국, 미얀마 등에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연대 활동을 펼친 성과라는 점도 강조했다.

기념재단은 유엔비정부기구위원회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유엔 등 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5·18정신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세계적으로 알리고 민주주의와 인권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기념재단의 유엔 특별협의 지위 획득은 그간의 활동들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공식 인정을 받았다는 것에 의미가 깊다"면서 "앞으로도 5월 18일을 유엔지정 '군사 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제정하는 운동을 이어가고, 세계 인권 이슈에 발빠르게 연대하는 활동과 함께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 목표, 특히 유엔 글로벌 평화 및 개발 의제의 기초를 형성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인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오늘 제92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절벽엔들 꽃을 못 피우랴'

보훈처, 광주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탑서

일제의 수탈과 차별, 불의에 항거해 학생들이 전면에 나서 이끌었던 항일운동을 기리는 '제92주년 학생독립운동' 정부기념식이 3일 광주시 서구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열린다.

2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 '절벽엔들 꽃을 못 피우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학생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한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학생독립운동 참여학교 재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2017년까지 교육부 주관으로 지방교육청이 개최하다가 3·1운동, 6·1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점을 고려해 2018년부터 보훈처와 교육부가 공동주관하는 정부기념식으로 격상된 학생독립운동 기념행사는 주제 영상, 헌화·분향, 기념공연, '학생의 날'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40분간 진행된다.

국민의례는 학생독립운동에 직접 참여한 독립유공자의 후손과 학생독립운동 참여학교 학생들이 함께해, 고귀한 애국심을 미래세대가 계승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는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낭독은 육군 제2공병여단 나 성원 상병(의중조할아버지 故 전총식 애국지사, 중조할머니 故 최현수 애국지사)이, 애국가는 1929년 당시 학생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광주제일고, 호수돈여고, 동래고, 오산고의 후배 학생들이 함께 나간다.

한편 1929년 발생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해 미국영사관이 미국 국무부에 보낸 문서가 92년이 지나도록 '기밀문서'로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전남대 김재기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난 2016년부터 매릴랜드주에 있는 미국 국가기록원에서 1929-1930년의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자료를 찾던 중 '비밀문서'를 통해 확인했다. 김재기 교수는 "이 문서의 목자로 미루어 볼 때, 당시 미국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봤고, 이 때문에 별도의 비밀자료로 분류했던 것 같다"며 "92년이 지난 이 문서는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가을 수채화 2일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의 나무들이 색색이 물들어 노란 물감을 푼 수채화를 연상케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5·18 시민군 등 '허위사실 유포' 지만원 고소

보수는 각 지만원(79)씨에 의해 북한군 특수부대원 일명 '광수'로 지목된 5·18 당시 시민군과 5·18기념재단 관계자 등이 지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전 5·18유공자 3명(박철, 박선재, 양홍범)과 김양래 5·18재단 이사 등 4명이 광주경찰청에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씨는 지난해 6월 펴낸 도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북조선 5·18 아리랑'에서 5·18은 북한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5·18항쟁 참가자를 북한군이라고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지씨는 해당 저서에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

에서 있던 박철씨의 사진을 가리켜 '제388광수(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 문웅조'라고 적시했다. 또 박선재씨는 '제8광수 최경성', 양홍범씨는 제310광수 김대식'이라며 북한군 특수부대원으로 지칭했다.

또 2015년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양래 5·18재단 이사의 법정 진술을 짜깁기해 '김이사가 법정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책에 실은 것도 고소장에 담겼다.

이에 앞서 5·18기념재단은 이 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받아들여졌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북구, 6~7일 전국 드론축구대회 개최

광주시 북구가 오는 6~7일 이틀 동안 북구 드론공원에서 북구청장배 '전국 드론축구대회'를 개최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전국 단위로는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는 광주시 4차 산업 선도 도시 이미지 제고, 드론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레저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드론 축구대회는 1부와 2부 각 8팀 3부 16팀 등 총 3개 리그로 운영되며 경기도 광주, 대전, 전주, 목포, 포항 등 전국에 있는 32개의 드론축구팀이 참가한다.

경기 첫날인 6일에는 개회식을 비롯해 레이싱

드론, 드론 군집 비행 등 퍼포먼스, 1?2부 리그 팀의 대회가 진행되고 7일에는 3부 리그 경기가 펼쳐진다. 시상은 리그별 1위부터 4위를 차지한 팀에게 북구청장상과 트로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북구는 민선 7기 들어 대충동 광주 시민의 숲 일원에 북구 드론비행연습장을 조성하고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드론 국가자격증 상시실시시험장'과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드론공원'으로 지정받는 등 드론 문화의 일상화에 주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내 연구진, 질병·노화 예측 당사물 분석법 개발

혈액 또는 체액 속에서 각종 영양소를 인지하고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을 구별해 면역작용을 돕는 당사물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분석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김태영 교수와 충남대 분석과학기술대학원 안현주 교수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은 대사적 중수 표지법을 활용,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당사물의 상대비를 분자 수준에서 고효율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

당사물(glycan)은 단백질에 결합된 탄수화물을 가리키는데 당사물의 종류와 개수의 변화를 통해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이 조절된다. 또한, 당사물은 세포 간의 분자 인식이나 신호 전달 과정에서 핵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암, 면역질환, 신경질환과 같

은 질병의 발현이나 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생체 내 당사물의 양 변화를 측정하는 기술은 당사물의 기능과 연관된 질병의 진단과 치료법 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중수 표지법을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당사물을 중수로 표지한 후, 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 정상 상태와 질병 상태에서 얻어진 당사물 간의 상대적인 양을 계산할 수 있는 정량 분석법을 자체 개발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미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령교육상담학 전공)	2	2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서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